

**[앞부분 줄거리]** 두 공과 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 소저를 부인으로 얻는다. 호 씨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 급제를 돕는데, 두쌍성이 두 기녀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받아들인다. 두 첩들은 설 부인과 두쌍성의 누이인 혜화 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설 부인이 죽자 호 씨를 쫓아내려 음해한다.

두쌍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변괴는 날로 생기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호 소저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젯밤, 별채에 불이 난 소식을 들었소?”

“저도 알고 있었습시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내가 집안에서 못되게 하지도 않는데 담장 안에 변이 이처럼 일어나니 노복들을 다스려 그 곡절을 물어보려고 하오.”

호 소저가 비록 명철하지만 거기까지 자신을 의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말리며 말하였다.

“㉔ 낭군의 은덕이 노복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누가 낭군이 주 무시는 곳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아마도 어린 시비\*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두쌍성에게 이 말은 시켜 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이후 두쌍성은 옳은 것도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삿일도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 날이 갈수록 호소저를 더욱 미워하였다. 나교란과 여섬요의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다.

중추 초순은 죽은 설 부인의 생일이다. 혜화 소저도 와서 차례를 지냈다. 차례를 마친 후 두쌍성과 혜화 소저가 옛일을 추억하니 눈물이 옷을 적셨다. 두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쌍성이 기운 없는 것을 본 나교란이 말하였다.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아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이 무슨 말인가?”

“㉕ 이 말썽을 진작부터 드리려고 하다가 감히 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시다. 그러나 오늘 어르신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말썽을 드립시다. 호 부인께서 어르신을 닮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마는, 돌아가신 설 부인 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년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발하면 제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㉖ 어르신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시고 고도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되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 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두쌍성은 모골이 송연하였다.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두어 그릇 제물을 담아 가져오라 하였다. 이미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갯속에 갇힌 두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두쌍성이 친히 젓가락을 들고 헤쳐 보니 그릇마다 한 움큼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두쌍성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호 소저에게로 가니 나교란과 여섬요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두쌍성이 사당 밖에 거적을 깔고 석고대좌하니 집안사람 모두가 놀라고 당황해하였다. 혜화 소저도 깜짝 놀라 즉시 나아가 붙들고 말하였다.

“이 무슨 일이십니까?” / 두쌍성이 혜화 소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자식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그 욕이 돌아간 어머니께 미치니 스스로 죄와 벌을 받는다고 한들 이 큰 불효의 죄를 어이 씻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제물이 불결한 것을 이르며 말하였다.

“내가 옛일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다 참았으나 이 일만큼은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인하여 형벌 기구를 갖추고 모든 정당의 시비를 문초하였다.

“제물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담았는가?”

“모두 호 부인께서 저희들을 거느리고 친히 하셨습니다.”

“제물에 머리카락이 들었으니 누가 넣은 것인가?”

“이는 정말 애매한 일입니다.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 부인께서는 목욕재계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깊은 효성에 저희들이 감동하였으니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연히 들어 있어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하물며 그릇마다 들어 있음에야! 이는 분명 고의로 그런 것이니 호 부인이 넣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들의 짓이다. 사실대로 아뢰어라.”

두쌍성이 채근하면서 형벌을 가했다. 두쌍성은 평소 자기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으로 진노하여 눈을 부릅뜨니 가을 하늘에 눈이 날리고 푸른 용이 구름을 헤치는 듯 아름다운 귀밑에 노기가 등등하였다. 태산의 큰 범이 바람을 गर름에 온갖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북녘의 큰 고기가 화를 내자 온 바다가 출렁이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정 없이 내리치니 모든 시녀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다.

“㉗ 우리 호 부인이 지극한 효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은 살피십시오. 천비들이 불충하여 호 부인께서 이런 누명을 쓰셨으니 천비 등의 죄는 천 번 죽어 마땅합니다. 어서 죽여 주시옵소서.”

살이 떨어지고 피가 흥건히 흘러도 모든 시비들은 기운이 높고 안색이 더욱 썩썩해져 다만 하늘을 원망하였다. 혜화 소저는 끝까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다가 두쌍성이 호 소저를 이토록 의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말하였다.

“오라버니의 총명함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의 음식을 장만하려던 사람이 도리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제물에 섞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언니의 지극한 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사나운 사람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하였다면 오라버니가 찾을 때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저 일이 순순히 발각되게 하였겠습니까? 이 누이는 곧이듣지 못하겠습니다.”

두쌍성은 원래부터 혜화 소저의 총명함을 믿고 있었다. 게다가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일단 욕에 가두었다가 처치를 기다리라고 명한 후 소매를 떨치며 외당으로 나아갔다. 이때, 두쌍성이 시비를 문초한다는 소식을 들은 호 소저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살이 떨려 길이 탄식하며 혜화 소저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이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낮으로 본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부인의 옷을 벗고 뒤뜰 작은 당으로 내려갔다. 온 집안이 흥흥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교란과 여섬요는 매질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 날뛰었다. 또한 호 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해하였다.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 소저에게 문안하였다.

- 작자 미상, 「청백운」

\*시비: 곁에서 시중을 드는 여자 중.

## 1. 25001-028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쌍성은 별채에 불이 난 일에 대해 호 소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② 나교란과 여섬요는 두쌍성이 호 소저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더욱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 ③ 두쌍성은 죽은 어머니의 제물이 더럽혀진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④ 호 소저는 시비들이 자신 때문에 문초당한다는 사실을 듣고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다.
- ⑤ 나교란과 여섬요는 뒤뜰 작은 당으로 내려간 호 소저에게 표면적으로 걱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호 소저가 나교란과 여섬요를 원망하는 계기가 된다.
- ② 두쌍성이 자신을 향한 혜화 소저의 진심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 ③ 여섬요가 두쌍성에게 나교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여섬요와 나교란이 혜화 소저와 갈등 관계에 놓이는 계기가 된다.
- ⑤ 두쌍성이 죽은 설 부인에 대한 호 소저의 태도를 오해하는 계기가 된다.

##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계획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고, ㉡는 상대방의 위선을 꼬집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 ② ㉠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사건의 원인을 추측한 것이고, ㉢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 ③ ㉡는 상대방이 보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고, ㉢은 대상이 보인 행동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과 ㉡는 모두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청백운」은 청운으로 표상되는 정치적 성공을 거둔 인물이 가장으로서의 책무보다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사대부가 당면한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사대부 여인과 이에 반하는 간교한 첩들 간의 대립이 드러나 있으며, 첩들의 계략으로 인해 번민하는 인물의 심리가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사대부임에도 첩들과 풍류를 즐기는 세속적 욕망에 빠지며 감정에 좌우되는 인물은 유가적 이념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것을 군자의 미덕으로 여긴 당시 세태를 고려할 때 사대부 역시 실상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은 도덕적 결함을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성 인물들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여성상 또한 제시하고 있다.

- ① 두쌍성이 호 소저에 대해 예삿일에서도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기며 미워하였다는 것을 통해 사대부 역시 감정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평범한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나교란이 두쌍성에게 호 소저가 제물에 불경한 것을 했다는 참소를 하고 나교란과 여섬요가 제물이 담긴 그릇을 주고받으며 마음대로 하였다는 것을 통해 간교한 첩들의 계략으로 처첩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③ 두쌍성이 제물에서 머리카락을 보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언급하며 불효를 했다고 하면서도 호 소저를 의심하는 것을 통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사적 욕망 사이에서 번민하는 인물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 ④ 호 소저가 시어머니의 생전에는 머리카락을 잘라 음식을 구하고 시어머니의 제사 때에는 목욕재계하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효를 다하는 사대부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군.
- ⑤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호 소저가 결백하다고 하는 것과 혜화 소저가 호 소저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삼아 두쌍성을 설득하려는 것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군.

(가) 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접경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서생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 부임 진실로 뜻밖이로다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쥐고 돌아서니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잊었어라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회양 옛 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이고  
 높고 험한 철령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겨 보면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오 대궐이 가려졌도다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땅이러니  
 비린내 노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다 알도다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땅 산하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구나

(중략)

군영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이려  
 꽃 피는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가니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 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 되어 있고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은빛 산이 건히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천막 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여 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싫증남 직하다마는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고개 가려 있고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六鎭)이로다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에 군은(君恩)이로되  
 대궐에서 떨어진 몸 뉘 아니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진대\* 백수(白首)에 세월이 쉬이 가니  
 초택 청빈\*은 원망도 많은지고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이할꼬  
 어부 이 말 듣고 낚시대 둘러메고  
 뱃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니  
 세상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노라

갖가지 세상살이에 낚시대 하나뿐이로다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 조우인, 「출새곡」

- \*치병 목민: 군대나 군인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이룸.
- \*한묵: 문학과 필묵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룸.
- \*회양 옛 사실: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선정을 베풀었던 일. 회양은 강원도 북부에 있는 고을로 급장유가 태수를 지낸 회양과 이름이 같음.
- \*적객: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작가의 신세를 일컬음.
- \*비린내 노린내 일소: 비린내와 노린내를 몰 뿌리고 쓸어 냄.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뜻으로 쓰임.
- \*윤관: 고려 예종 때의 문신. 여진을 정벌하고 함경도 지방에 구성을 개척함.
- \*김종서: 조선 세종 때 무신. 육진을 개척해 국토를 넓히는 데 큰 공을 세움.
- \*옥저: 함경도 함흥 일대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 \*풍패: 천 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킴.
- \*진대: 초나라 희왕과 무산신녀가 밀회를 즐기던 누대.
- \*초택 청빈: 초나라 연못 푸른 마름. 초나라 굴원이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은 충절을 지녔던 사실을 의미함.

(나) 몇 해 전 북경에 가게 되었을 적의 일이다. 마침 병에 걸려서 가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에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한 손님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 주겠네. 얼마 전 임당 정유길이 북경에 갔는데, 높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는 비결을 생각하다가 홀연 잊을 망(忘) 자를 깨달았다지.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 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 그래서 만리 길을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하게.”

나는 그 말대로 했다.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 글자를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 삭히고 밀쳐서 버렸다.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자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병이 나았다. 덕택에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왔다. 이 년 뒤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했다.

중국에 가는 것은 영광이고, 오가는 기간이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걱정이 된다.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북경보다 훨씬 멀고 풍속은 요동보다 백 배나 나쁘다.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약도 없으며, 죽는 사람이 아홉이면 사는 사람은 하나이다. 그러니 걱정과 고민이 싹트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학문에 힘써서 이치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애타는 생각이 저절로 머릿속을 오갈 것이다. 높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 또 **임당의 비결**대로 했다. 영고성쇠를 잊고, 삶과 죽음을 잊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아침에도 잊고 저녁에도 잊고 밤에도 잊고 앓아도 잊고 누워도 잊었다. 한 걸음을 땀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여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 추위와 괴로움이 병을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오는 샅된 기운이 액운을 만들지 못하니, 잊기에 힘쓰고 성찰하여 잊은 효과가 크다.

문왕은 유리(羨里)의 감옥에 갇혔으나 거문고를 타며 노래했고, 정자는 부릉에 유배되었으나 모발이 이전보다 좋아졌다. 성현은 천명을 알고 즐거워하니 어찌 잊기를 기약하겠는가. 이치를 위주로 삼으니 저절로 잊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현보다 한 등급이라도 아래 사람이라면 잊기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호걸다운 선비도 우환을 당하면 시를 지어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걱정을 잊었다. 그들이 터득한 바가 알아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개는 송나라의 강직하고 단정한 군자이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석양이 지는 가운데 술을 사서 어부의 노래를 듣자, 걱정이 없을 수 없어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고자 했다. 시비와 영욕을 모두 잊고 시인의 불평한 마음 또한 술을 마셔서 잊은 것이다. 유배되어 몹시 불평한 마음을 잊을 수 있었던 것도 술을 마셔서이다. 그렇다면 잊는다는 한 글자의 유래는 오래된 것이니, 정유길이 스스로 터득하여 노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잊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이것은 돈오법에 가까운데, 공부가 얕은 것이 문제이다. 평소 학문에 힘쓰고 사색하여 이해해야 한다.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

다만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다. 그래서 이 글자로 가슴속을 넓혀 살아났으니 무슨 해가 되겠는가. 두 차례 북경에 다녀오고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지만 나는 지금까지 살아 있다. 손님의 이야기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기에 감히 글을 짓는다.

- 홍성민, 「망설」

## 5. 25001-028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령적 어조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6.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안변 북쪽’ 을 바라보고 ‘오랑캐’ 를 떠올리며 ‘운관’ 과 ‘김종서’ 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위태로운 나라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용흥강 건너 들어 정평부’ 를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 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목적지로 가기 위한 화자의 여정을 알 수 있군.
- ③ ‘옥저 땅 산하’ 를 돌아보고 ‘천년 풍패에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 하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공간과 관련된 역사의 자취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춘삼월에 원수대에 올라’ 가서 ‘맑은 경치’ 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화자가 산수를 구경하며 흥취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갓가지 세상살이에 낚싯대 하나뿐’ 이라고 하며 ‘갈매기는 나와 벗’ 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자연과 일체가 된 삶의 태도를 알 수 있군.

##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계기가 되고, ㉡은 글쓴이가 타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 ② ㉠은 화자가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과 관련된 소재이고, ㉡은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이고, ㉡은 글쓴이가 대상의 내면적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여기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은 글쓴이가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시름을 드러낸 데 따른 대상의 반응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은 글쓴이가 이를 통해 대상이 현실에서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고 여기는 소재이다.

## 8.

<보기>는 ‘군자’ 가 지켜야 할 이상적인 처세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군자는 그 처한 위치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이 처한 위치 바깥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며,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며, 오랑캐의 땅에서는 오랑캐에 맞추어 행동하며,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 맞추어 행동하니,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은 바가 있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으며,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자신을 바르게 할 뿐 남에게 요구하지 않아서 남으로부터 원망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로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순리대로 생활하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하며 요행만을 바란다.

- 『중용』

①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잊을 망 자’ 를 떠올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은, 환난에 맞닥뜨렸을 때 환난에 맞게 행동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②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 으며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 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역경 속에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한 것은,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③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하’ 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을 행하는 소인의 행태를 경계하며 요행을 바라는 본성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겠군.

④ ‘마음에서 잇는 것은 세상사에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난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걱정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빈천한 처지에서도 부귀한 처지에 처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군자가 아니라면 걱정을 잇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⑤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잇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가 근심을 잇으려 노력한 것은, 처한 위치에 따라 행동하며 천명을 기다리는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군.

## 9.

입당의 비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 ② 성현들의 삶의 태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선천적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 ③ 어려움을 겪을 때 걱정하지 않기 위해 잊어버리는 데 힘을 쓰는 것이다.
- ④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과 관계를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다.
- ⑤ 영욕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저절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북방 지역은 국경과 가깝다는 점에서 군사적 요충지로 나타나거나 가파른 지형과 땅의 척박함 때문에 유배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와 (나)의 작가는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로 인한 억울함이나 고립감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사대부로서의 역할을 떠올리며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가)의 작가는 경성의 관리로 임명되어 임지로 떠나면서, 이에 따른 서러움을 표출하지만 북방의 문호인 경성의 지리적 속성과 경성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성은을 드러낸다. (나)의 작가는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는데, 외딴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뇌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작가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정신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 ① (가)의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 썼는데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 다는 것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다스리게 된 데 따른 소회가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쥘고’ 돌아서서 ‘만리 밖 국경에 이 한 몸 다 잇었’ 다는 것에 사대부로서 자신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나)의 ‘한 걸음을 땀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 였다는 것에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④ (가)의 ‘대궐에서 멀어’ 진 상황에서 ‘평생 먹은 뜻’ 을 떠올리는 것과, (나)의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 한다는 것에 모두 북방에서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드러나 있군.

⑤ (가)의 ‘대궐을 홀로 떠나’ 면서 ‘적객은 무슨 죄인고’ 라고 하는 것에 북방으로 가야 하는데 따른 서러움이, (나)의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북경보다 훨씬 멀’ 다는 것에 북방에서의 고립감이 드러나 있군.

⑦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견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건니? 다 말도 못 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다가 골통을 벽에다 쿵쿵 부딪쳐 주었다. ⑧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 버리려고 다시 악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층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삼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곤 확실히 다르다. 전연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돈을 선뜻 쥐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 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요즈음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 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한다.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한다. 아무리 연속극이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뭇로 알고 즈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召命)이다.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뎌.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⑨말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김새를 타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썄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기자고 체운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왔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 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기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⑩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가엾게서리,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㉔나는 그를 쫓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얼룩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지\*,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날림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 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 등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흠쳐 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아혼아홉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흠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짹짹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반자지: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를 바르는 종이. 흔히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박혀 있음.

## 11. 25001-029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이 보여 주는 전형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중심 사건의 의미에 대한 다각적 분석의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의 인물인 서술자가 하는 고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사유와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12.

윗글을 읽고 ㉑~㉔에 대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상훈에게 ㉑과 같은 조언을 해 준 일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뿌듯함을 느꼈을 거야.
- ② 상훈이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후에야 ‘나’는 그가 ㉒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을 짐작하게 되었을 거야.
- ③ ‘나’가 ㉓과 같은 상상을 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상훈이 한 데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거야.
- ④ 상훈의 지적에 따라 자신을 돌아본 ‘나’는 윤리적 차원에서 ㉔과 같은 반성을 하게 되었을 거야.
- ⑤ ㉔을 보면 자신의 당당한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며 돌아온 ‘나’는 공간에 관한 자신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했을 거야.

## 13.

텔레비전 연속극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훈과 ‘나’의 관계가 전과 달리 불편해지기 시작한 계기이다.
- ② ‘나’가 괴로운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도피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 ③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나’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교훈의 집약체이다.
- ⑤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한 반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회상한 유사 사례이다.

##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인 1970년대는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빈부 격차도 점차 확대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빈곤층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 한편 일부 부유층은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가치를 망각하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한 빈곤층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 ① 상훈이 지난 일을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유층이 망각하기 쉬운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②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는 빈곤층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환기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나’의 새삼스러운 자각과 관련된 표현이다.
- ③ ‘나’가 ‘분해서 이를 부드득 갈’게 되는 것은 상훈의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훼손당했다고 느낀 데서 비롯된 분노 때문이다.
- ④ ‘아혼아홉 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는 빈부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유층의 과도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
- ⑤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실전연습 04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흠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흠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계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쏘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15. 25001-029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청각과 촉각을 관련지어 감각의 정도를 심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비유의 방법을 통해 대상의 외양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어구의 반복을 활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열거의 방식을 통해 대상이 맞이할 미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하여 행동의 진행양상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복숭아나무’에게 가까이 가지 않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화자가 판단하는, ‘복숭아나무’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필요했던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그녀’가 놓여 있는 현재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대를 이어서 계속되어 온 ‘그녀’의 가난한 처지를 함축하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미적 거리는 대상이 화자의 감각적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는 비교적 먼 상태이며, 정서적 반응이나 교감, 관념적 의미 부여 등이 이루어질 때 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가)에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졌던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이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나)에는 대상에 대한 공감과 위로, 이해와 연민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 드러나는데, 특히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행위 하는 것으로 나아감으로써 화자와 대상 사이에 교감이 일어나고 미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 ① (가)에서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앓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멀리로만 지나’ 치다 ‘수천의 빛깔이 있’ 음을 ‘멀리서 알았’ 다는 것은 대상과 화자의 미적 거리가 이해와 교감으로 변화하기 이전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가재미처럼’ 누워 있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 것은 대상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위로에 기반한 관계 설정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 화자를 위해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주는 것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교감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 음을 보는 것은 곁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인지라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이 감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에서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 내는 것은 정서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와 대상 사이의 미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